

# 경기회복 기대감... 외국인 몰린 中 증시 '탄력'

## 제조업 동향에 쏠 증시 희비

中 차이신 PMI 51.1, 예상치 웃돌아 일본 증시, 3만9000대 '숨고르기' 제조 대기업 업황판단지수 2p 하락



/유투이미지

엇갈린 제조업 동향이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탄력을 더하는 중이다. 반면, 상승 흐름을 유지하던 일본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반등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몰들어 파죽지세의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을 벌이던 일본증시 니케이225는 전날 붕괴된 4만 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3만9000대에 머물렀다.

부활절 연휴로 29일부터 1일까지 휴장했던 홍콩증시 항셱지수도 장중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시계(현지시간)에 전 거래일보다 2.13% 상승한 1만6894.35에 거래됐다.

다만 전날 1.19%가 오르면서 최근 한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8% 떨어진 3074.96에 마감했다. 반면, 니케이225는 전 장보다 0.09% 상승한 3만9838.91에 강보합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의 희비는 제조업 동향으로 갈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날 S&P글로벌은 올해 3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직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1.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다. 중국 산업생산의 회복가능성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이어지면서 한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인 1.19%가 뛰었다.

SK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PMI의 경우 생산, 신규주문이 모두 크게 반등했다. 특히 신규수출주문은 작년 2~3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상회했다. 비제조업 PMI 역시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되면서 경기 반등 기대감을 확대시켰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사실 작년에도 3월 정치행사인 양회 시즌에 경기センチ멘트가 개선됐다가 다시 고꾸라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면서 "최근 중국의 정책들이 외국인 자금 유치 노력 등 경기 개선이 지

속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어 단순히 작년과 같이 경제주체들의 실망감 속에 PMI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 매수세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주 외국인인 상해 증시에서 약 68억9800만위안(1조2850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회사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장려, 대주주 지분 매각 억제, 신규상장 조건 강화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일본은 일본은행(BOJ)이 발표한 1분기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에서 제조 대기업 업황판단지수(DI)가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동향이 엇갈리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니케이225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결국 반났던 4만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한국투자증권 TPG 안젤로고든과 韓 부동산 투자 협약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TPG 안젤로고든(TPG Angelo Gordon)과 부동산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과 TPG 안젤로고든은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에서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저평가 돼있는 국내 개발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NPL(부실채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특수상황 투자는 자산 본연의 가치나 경쟁력과 별개로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저평가 받거나 어려워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양사는 국내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투자처 모색·deal sourcing) 역량과 TPG 안젤로고든의 자금력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양사의 힘이 합쳐지면 금융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딜 클로징(계약완료·deal closing)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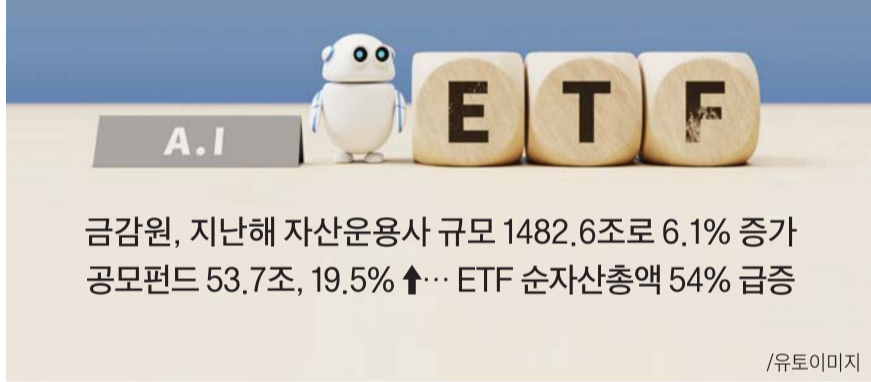
# 자산운용사 순익 증가... "올해 ETF 경쟁 치열할 것"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모펀드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선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148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조 7000억 원(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펀드수탁고 중 공모펀드는 3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말 보다 53조 7000억 원(19.5%) 늘었고 전체 운용자산의 35.6%를 차지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최근 10년 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중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21조 1000억 원으로 54.3% 급증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전년 말보다 40조 원(7.2%) 증가한 595조 6000억 원(64.4%)이다. 사모펀드는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을 위주로 증가세가 집중된 모습이었다.

자산운용사들의 작년 말 투자일임



/유투이미지

계약고는 557조 8000억 원으로 채권형(422조 5000억 원), 주식형(93조 9000억 원), 혼합채권(9조 4000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전체 468개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23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기순이익(2조 8513억 원)보다 43.8% 줄어든 수치다.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38.2%)은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측은 "2022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이익이 2조 원대로 컸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468개사 중 289곳이 흑자, 179곳은 적자가 났다. 적자 회사 비율은 전년도 50.3%에서 38.2%로 줄었지만 2021년 10.9%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다. 일반 사모운용사의 경우 387개 중 166개사(42.9%)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적자 비율 57.3%와 비교해 14.4%포인트 감소했다. 운용사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1%로 전년 대비 1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금감원은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최근 10년 동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적자 회사 비율도 줄었으며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이 제고되면서 실적이 호전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ETF 혼풍에 AI 섹터 ETF, 월배당 특화 ETF, 반도체 섹터 ETF 등 상승 테마 ETF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ETF 브랜드 교체에 나서며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22년 배재규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기존 'KINDEX'에서 'ACE'로 브랜드를 교체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브랜드 명이 직관적이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향후 새로운 테마주를 발굴하거나 안정적인 월배당이 확보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숙제"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키움증권 19-6국고채 장외판매

키움증권은 '국고 01125-3909(19-6) 채권'을 장외채권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19-6 국고채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돼 투자위험등급은 매우 낮은 위험이고, 만기는 15년 후인 2039년 9월 10일이다.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가 활발하다.

키움증권을 통해 19-6 국고채 장외채권 매수를 할 경우 매수 수익률은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세전 연 3.24%이다. 7452원으로 19-6 국고채 액면가 1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은 "당사는 판매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에 장외채권을 공급해, 채권판매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19-6 국고채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금리가 대체로 낮았던 2019년 발행된 채권이라 6개월마다 지급되는 표면금리는 세전 연 1.125%이며, 세금도 1.125%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키움증권의 주식 거래 모바일앱인 영웅문S#이나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매수할 수 있다. 최소 매수금액이 액면가 1000원부터다. 키움증권은 현재 국고채뿐만 아니라 20종 이상의 회사채, 신종자본증권이나 단기사채도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 MS株 3989만 달러 매수... 서학개미, 美 테크주에 투자

## 해외주식 Click

대만 TSMC 3282만 달러 사들여 엔비디아·버티브 홀딩스 등도 인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가 정제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테슬라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여전히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테슬라 주가가 바다

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3월 26일~4월 1일) AI 기술을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3989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지난 2월9일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420달러선에 머물러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000억 달러(약 134조 6000억 원)를 투자해 AI 용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서학개미는 AI 수혜주로 꼽히는 TSMC(3281만달러), 엔비디아(2872만달러), 버티브 홀딩스(1794만달러) 등도 순매수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의 주가가 지난달 초에 비해 5.17% 하락하는 등 조정을 받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주가도 지난 3월 25일 950.02달러에서 이달 1일 903.63달러까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테슬라를 3789만달러어치 사들였다. 테슬라는 비야디, 샤오미 등에 밀려 1분기 인도량 전망도 밝지 않지만 170달러대인 주가가 싸다는 인식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한달간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무료 사용 기회 제공 등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급선화된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주식시장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고용지표에 주목하며 지수상단을 테스트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금융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이어질 1분기 기업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